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1호

2024 Vol. 5, No. 1, 181 - 210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을 통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윤인자*, 이준우**

본 연구는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참여한 한국어 중심의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이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되었고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고충과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해 총 4명의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으로 4개의 주제와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엔 부족한 지원체계’를 포함한 1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농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여섯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과 다섯 가지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농인, 농 문화, 결혼 이주 농인 여성,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서론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 현상으로 급부상되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이성희·김나연·김현수, 2016). 이에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다각적이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준우 외, 2021).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수어(手語)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여성들 중에서 한국 농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로 편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수어가 아닌 자국(自國) 수어를 사용하는 외국 농인들은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아갈 때, 한국어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라는 음성언어적인 장벽과 동시에 자국 수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을 이중적으로 경험한다. 그럼에도 농인의 경우 수어가 달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사성을 공유하는 독특한 농인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청인이 다른 국가의 언어를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청인의 주류문화와 달리 고유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농 문화(Deaf Culture)라 부른다(정진영, 2002; 이준우, 2022). 농인들은 이렇게 수어를 기반으로 하면서 시각적 정보가 두드러지는 농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인다(김경진, 2004; 이준우, 2020). 따라서 농인에게 있어서 수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특정한 의사소통 수단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라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정체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준우, 2022).

이렇게 볼 때, 기존의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 서비스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온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즉, 농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언어 및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현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같은 극히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농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호하거나 보장하는 가운데서 이뤄지는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동안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은 의사소통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농인 친화적 가족 지원서비스가 아닌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진행되는 다문화교육과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비장애 이주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교육 경험까지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교육

적 지원이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실제 한국 사회 적응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인의 수어권리가 보장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자료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이 경험한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의 어떤 영역에서 유용했는지, 반대로 예상치 못했던 고충이나 현실적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지원 프로그램의 여러 구성 요소들 가운데에 유용하거나 부족한 측면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이나 결혼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있으나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특수한 의사소통과 문화적 어려움을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이다(이미선, 2015; 이영미·정임순, 2019; 이영미·이진숙, 2020). 이에 본 연구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을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특성

결혼 이주 여성은 이주한 국가의 남성과 결혼한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을 의미한다(김혜원·임춘희, 2012). 이에 본 연구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은 일반적인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서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자국수어이든 한국수어이든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특징과 농인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지닌 경우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농인의 성장 환경을 살펴보면 농인은 농 사회라고 불리는 수어로 공유되는 연대적 공동체와 연결되어 생활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이준우, 2020). 그리고 농인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농인과 결혼하기를 선호한다. 미국의 경우 80~90%가량의 미국 농인이 자신과 같은 미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결혼하고, 농인 부부의 가족 형태를 형성하고 있었다(Mitchell & Karchmer, 2004; Bishop & Hicks,

2005; Schein, 2009; Holcomb, 2012). 또한 농인이 자국의 농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농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부부간 공용어는 자국수어이든 배우자 국가 수어이든 모두 수어였다. 결국 국가별로 다른 수어임에도 수어라는 공통분모로 만나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다(Preston, 1994; Scott, & Hoffmeister, 2017; Singleton & Tittle, 2000). 농인들은 음성언어의 소리가 아닌 시각적 체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시각적 요소로 대화하는 게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서로 간에 문화나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청인과는 다른 체계를 가진다(Mitchell & Karchmer, 2006; Bauman, 2008).

이렇게 국외 사례들을 적용해 볼 때(Preston, 1994; Scott, & Hoffmeister, 2017; Singleton & Tittle, 2000), 한국 사회의 결혼 이주 농인 여성도 거의 대부분 한국 농인과 결혼한 경우로 추정된다(이영미·이진숙, 2020). 각 나라마다 수어가 다르지만 자국의 수어를 사용하면서 자국의 농 문화 기반 속에서 살아왔기에 농인이라는 공유 영역으로 결혼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학력은 고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은 단순노무직과 생산직의 비율이 높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지원받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서비스 현장의 환경이 청인의 환경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성언·최유, 2006; 이영미·정임순, 2019). 그로 인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결혼 이주여성이라는 것과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편견도 있을 것이다(이영미·이진숙, 2020).

2.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현황

우리나라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접근은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틀 속에서 이뤄진다. 사실 언어, 인종, 전통, 지역, 피부색 등이 다른 이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학적 변화가 초래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 사고방식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폭넓게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 '다문화 교육과 훈련 및 다양한 서비스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배경으로 이뤄진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국가복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이성언·최유, 2006; 김선녀, 2013; 최희선, 2018).

그럼에도 국외로부터 한국 사회에 유입된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지원 서비

스와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그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우월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다(최희선, 2018). 즉, 결혼 이주민 각각의 개별 상황과 원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와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침서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의 형태로 습득하게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크다.

2006년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다문화 관련 부처별 사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문화정책 부처별 또는 지자체별로 프로그램이 자체 운영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책 내용의 경우 결혼 이주자 또는 다문화 가족, 다문화 자녀 등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춘 분절적 서비스들로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영주, 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과 같이 정보제공 및 주입식 강의 방식의 교육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한국 사회에 통합되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지침으로 규정된 수준과 범위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에 관한 이해를 갖게끔 하는 것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다문화정책의 실질적인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으로 2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영위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기본 프로그램’(다문화 가족 교류소통 강화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가족봉사단 프로그램 등)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문 한국어 교육서비스, 방문 자녀생활 지원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기능한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3).

한편 보건복지부는 결혼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결혼 이주자를 위한 가족지원 사업으로 결혼 이주자 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책 홍보, 정보제공 사업 등을 통해 한국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령 결혼 이주자, 새터민 등 다문화 관련 문화 교류 활성화 정책에 맞춰 다문화 이해

증진 및 결혼 이주자들에게 시급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권’을 개발했던 것을 들 수 있다(국립국어원, 2009; 이보라미, 2018).

3. 국내 유일의 수어를 기반으로 한 농인 대상 학습지원센터

한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청각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학습 환경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청각장애인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곳으로, 청각장애인 결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 기관이기도 하다. 결혼 이주 농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회 정착과 안정 및 실질적인 적응에 유용한 언어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표 1〉 청각장애인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사업
학습 더함팀	교육지원 및 상담서비스	진학컨설팅, 진학상담, 공무원시험지원, 문해교육지원, 영어학습, 자기개발학습, 온라인학습지원, 의사소통지원
	학습지원	아동학습지원, 성장멘토링, 영어학습, 독서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사회통합 학습지원	초졸, 중졸, 고졸 검정검시지원, 라온 한글교실, 교과학습, 일상생활 수어학습, 한글학습, 국어학습
	역량강화 사업	인성프로그램, 역량진단 및 강화교육, 학교연계사업, 학습멘토
학습 나눔팀	여가생활지원	설리번 양성교육, 보행교육, 여가활동,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지원	한국어 수다, 식생활교육, 문화체험교육, 귀화면접지원, 귀화모의면접, 수어교육, 문자통역서비스, SK행복IT장학금, LG U+요술통장
	일상교육지원	운전면허증, 한자학습, 한국사, 코다독서교육, 슬기로운 대학생
대체학습 개발팀	영상콘텐츠	학습에 필요한 수어 및 자막 삽입, 영상학습자료 제작
	온라인학습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관용어 학습
	봉사팀	자원봉사, 지역주민, 기관 등 청각장애 복지서비스 자문제공

출처: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2024) 누리집 프로그램 소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기존 프로그램들은 청인 중심의 한국어 기반 의사소통 방식으로 교육 내용이 전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도 농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 채 구성됨으로 농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적 효과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함경수, 2020). 아울러 교육 참여의 접근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대상자를 파악하여 문제가 없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있지 않거나, 통역 서비스를 1시간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은 기타 시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 결과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어를 기반으로 한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타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과는 뚜렷한 차별화가 이뤄진 결혼 이주 농인들에게 매우 유용하면서도 특화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질적 사례연구는 현재의 시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일반적이거나 또는 다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상황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제한된 경계를 가진 인생 사례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Stake, 2013). 또한 질적 사례연구는 현재의 현상을 실제 생활 맥락 내에서 연구하는 경험적 탐구로서도 가치가 크다(Yin,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교육 참여 경험을 파악하려는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한 연구참여자를 사례로 선정하여 풍부한 자료 해석이 가능하고, 아울러 다량의 구술 자료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에 참여했던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경험을 수어 내러티브로 파악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자국 수어이든 한국수어이든 수어(手語)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여성들 중에서 초급대학 이상의 교육을 마친 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농인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대졸 이상은 전체 응답자의 17.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고학력으로 표현된다(여성가족부, 2022). 연구참여자 선정의 범위를 고학력 농인으로 한 이유는 결혼을 통해 이주한 농인 여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한국 생활에서도 유사한 생활 욕구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대다수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일정 수준을 갖춘 고등교육의 경험이 있을 때 이용 욕구와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가 풍성하게 표현될 것으로 유추하였다.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은 총 4명이다. 처음 인터뷰에 참여한 사례는 5명이었으나 분석 단계에서 한 참여자가 좁은 농사회의 특성상 인터뷰 내용만으로도 본인이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해 연구 참여를 철회하여 최종 4 사례가 되었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구 분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
연령	40대	40대	50대	40대
장애 시기	3세/고열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현 직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사용언어	몽골어, 몽골수어, 영어, 한국어, 한국수어	말레이어, 말레이수어, 영어, 한국어, 한국수어	몽골어, 몽골수어, 한국어 한국수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수어, 영어 한국어, 한국수어
출신 국가	몽골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학력	대졸	전문대졸	대졸	대졸

면접은 2022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18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약 한 달가량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 시간은 개인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이기[移記] 과정을 통해 촬영된 수어문을

원형 그대로 전사하였고, 문장 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한국수어 표현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영상통화를 통해 인터뷰 영상의 답변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면접은 본 연구의 주 저자가 한국수어로 진행하였으며, 면접 시작에 앞서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모든 면접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하였다. 먼저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익명성과 비밀보장, 동영상 촬영에 관한 내용과 중간에 면접을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참여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어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주 저자는 10대 때부터 농인들과 함께 수어를 사용하며 상호작용을 해왔고, 25년 이상 전문 수어통역사로서 주요 방송 및 미디어 매체를 비롯한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 통역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면접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수어로 구술된 이야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연구자의 사무실과 연구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카페 등 편안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면접은 연구 참여 및 녹취와 녹화를 위한 동영상 촬영 등을 포함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시작하였다. 면접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한국수어 습득 과정’, ‘한국에서 경험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앞으로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한편, 질문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답변을 도출하였으며, 혹이라도 면접 중에 불편함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인터뷰는 캠코더를 활용해 연구참여자의 수어 장면을 녹화하였고,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주저자가 연구참여자의 녹화된 영상을 직접 전사하였다. 이후 전사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어 본 후 내용이 모호하거나 좀 더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녹취된 파일을 재청취하면서 내용을 정교화하였는데, 본 연구와 관련 없는 자료들은 배제하면서 교육 참여 경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한 부분을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영상통화를 통해 인터뷰 영상의 답변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1차 도출된 수어 내러티브에 대한 한국어 번역 녹취자료는 교신저자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였다. 교신저자는 35년 동안 한국 농인과 교류하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온 수어연구자로 주저자가 1차 분석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윤리와 엄격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진 모두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모집부터 인터뷰 진행과 촬영, 녹취, 분석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에 임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시각언어인 수어로 표현되는 연구의 특성상 모든 내용이 영상으로 촬영된다는 부담이 클 수 있다. 이에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세심히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개별 인터뷰 진행에 앞서 사전에 연구 설명문과 질문지를 전달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특히 인터뷰 시작에 앞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녹화 동의 여부, 비밀보장, 익명성, 제3자 제공 여부, 답변에 대한 거절 가능)를 구하는 서면동의를 얻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인 4명의 사례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과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으로 총 4개의 주제와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엔 부족한 지원체계’를 포함한 1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제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	•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엔 부족한 지원체계 • 제한된 정보로 인한 소외와 고립 • 낯선 타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 • 고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살리지 못함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 외국에서 온 농인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 • 이중언어·이중문화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 • 다문화 농인들을 위한 자조모임의 필요성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 다문화 농인에 대한 인식 부족 •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 필요 •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필요 • 교육비 부담 해소 필요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	• 다문화 접근성이 강조된 교육과정 개발 • 교육 대상자에서 전문가로의 도전 • 후배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을 위한 바람

1.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

1)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엔 부족한 지원체계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인들은 본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한 차례 일회성으로 끝나고 한국을 홍보하는 간단한 소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전부였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이해하기에도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에 와서도 결혼 이주 농인 여성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나 지원체계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결혼을 할 때 그 나라에 대해 당일 하루 6시간 교육을 통해 간단한 정보와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팸플릿을 줍니다. 지원체계가 잘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 떠나기 전 6시간~7시간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알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연구참여자 2)

2) 제한된 정보로 인한 소외와 고립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인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결이 되어 연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각장애 여부가 주요 정보에서 누락되어 전화로 소통할 수도 없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한국생활 초기에는 농인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한국수어를 배우게 되면서 한국농인을 만나고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한국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주민센터에 등록함과 동시에 다문화센터랑 연결이 되었고, 집을 방문한 다문화센터 선생님과 보청기를 착용한 다음 대화를 나누었고, 2년간 주 2회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몸골어를 못하셔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

결혼 후 2년간은 한국수어도 배우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조력자도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후에 친구의 소개로 한국 농인들이 모이는 수어통역센터를 알게 되어 그곳에서 늦게나마 수어를 배웠고 그 후로 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3)

3) 낯선 타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인들은 낯선 타국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해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어는 물론 한국수어로도 소통할 수 있는 이들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었던 이주 초기 단계에서 심한 경우 우울감이나 향수병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기

도 하였다.

몽골에서는 적극적인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한국에 와서 2년 정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외롭고 많이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

한국에 와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저를 신경을 써 주거나 소통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집이랑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다 보니 향수병이 생겨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연구참여자 4)

4) 고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살리지 못함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민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고국에서 장애인복지센터, 인테리어 회사, 사무직,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한국에 와서도 고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살려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등으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거나 무직상태로 가끔씩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오기 전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농민 수어통역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에 와서 전문직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몇 년 전에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 게 전부입니다. (연구참여자 1)

학교를 졸업하고 15년간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였고, 회사 사람들로 부터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으며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단순 생산직 일을 하는 회사를 다녔고, 결혼 이주자라는 차별을 받게 되어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2)

사무직 회사를 다니다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갖기 원했으나 본국에서의 사회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져 단순노동 일자리 화장품용기 조립공장에 2년 정도 야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참여자 3)

2.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1) 외국에서 온 농인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고 대하거나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을 향한 편견과 여성이며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라는 이들의 특수한 상황은 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 역시 여전히 개선이 크게 필요함을 말해준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어 신청하면서 수어통역이 지원되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강사의 입 모양을 보며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접하고자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듣는 저의 모습이 청인들에게는 제가 농인이 아닌 청인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고,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

먼저는 소통의 어려움이 제일 큼니다. 농인, 장애인, 외국인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서툴다 보니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전문용어, 단어가 많아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들이 취업을 해도 이직률이 높습니다. (연구참여자 3)

주위에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게 더 심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청인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듣지 못하는 문제로 섞이지 못하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4)

2) 이중언어·이중문화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남편과 작은 오해와 갈등이 반복되면서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보호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에서 오는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익히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한국어-한국수어가 익숙하지 않아 남편과 한국수어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 작은 오해들이 생겨서 사이가 멀어지고, 음식문화도 많이 다르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화적인 차이가 커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수업을 가면 소통의 어려움이 제일 컸어요.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강의에 집중도 안 되고 강사의 말도 빨라서 입술 독화를 읽기가 너무 힘들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집으로 바로 왔어요. (연구참여자 1)

제가 사는 곳이 도시가 아니어서 이웃 간에 서로 인사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농담이나 일상생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웃는데 혼자만 웃지 못하다 보니 점점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4)

3) 다문화 농인들을 위한 자조모임의 필요성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경우 남편 외에는 특별히 교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서로 언어적으로 소통하고 심리적으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농인들이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가족 간의 소통단절을 극복하고 구성원들과도 서로 친구가 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지금 참여하는 청인의 모임은 다문화 농인과 맞지 않아서 다문화 농인들을 위한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모임을 통해 다문화 농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1)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잘 알아야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배우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서로 마음을 나

눌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서로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많은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2)

다문화센터,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듣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 가면 농인들을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서로 교류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 농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다문화 농인들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함께 참여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대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오해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는 농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4)

3.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1) 다문화 농인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와 지자체, 기관마다 다양한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강사들은 다문화 농인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가 부족함을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교육 강사들이 다문화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이 청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같이 공감하기 어렵고, 강사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참여의 선택지가 줄어들었어요. 강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많은 곳을 참여해 본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다문화

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농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다문화 농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강사들의 다문화 농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4)

2)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 필요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어통역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수어통역이 없다. 수어통역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시간의 제약, 지속적인 통역이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일부 농인들은 필답이나 강사의 입 모양을 보고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도 하였으나 맥락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외에 본인이 배우고 싶은 민간학원에 등록을 할 경우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 배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공이 영어이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수업 참여에 있어 어려움이 많지는 않지만, 주위 환경의 소음이나 그룹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에 수어통역사가 상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은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기에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몇 번 다니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어통역사가 모든 수업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않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참여 대상자를 고려하여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교육에 참여했을 때, 한국어만으로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부족한 실력

이지만 영어자료도 함께 보면서 겨우 교육 내용을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어통역을 제공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닐 때 비싼 교육비를 지불하고도 통역지원이 없어서 강사의 입 모양과 자료를 보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필담으로 주고받으면서 정말 어렵게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3)

수어통역센터에서 통역 지원은 1시간 정도 해주는데 그것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역을 부탁할 경우는 개인이 통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되고, 전문가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수어통역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되어, 통역사를 부르지 못한 채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불편함을 많이 겪다 보니 주위에서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에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교육 수업에 있어서 통역의 정확성(accuracy)과 전달력(delivery)에 대한 만족이 적다. 통역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수업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크기에 전문 수어통역사의 지원을 받길 희망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관에서 좋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경우 복지관과 얘기를 나눠서 소액의 통역비로 통역사를 부르게 되는데, 통역이 매끄럽지 않고 질이 떨어져서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반 수어통역사가 아닌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교육에 문제없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S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수어통역이 부족하고 한국어 대응수어를 하고 있어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어통역을 잘하는 전문가들을 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잘 되면 그다음에 농인에게 맞는 전문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참여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많은 프로그램들이 청인 대상으로 맞춰져서 진행되기에 참여하는데 벽이 많습니

다. 농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어통역을 잘 하는 사람을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3)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현행 교육 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배울 수 있을 희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나 직업으로의 연결은 쉽지 않았음을 토로하였다.

한국농아인협회 지부 수어통역센터에서 3개월가량 한국어를 배웠고, 다문화센터도 갔지만 한국어를 늦게 접한 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진도가 너무 느리고 답답함이 많아서 결국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4)

지금은 복지관이나 학습지원센터에서 같은 이주 농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3개월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어는 초, 중, 고급으로 나뉘서 꾸준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은 한번 참여를 하면, 재신청을 한 후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해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서 진취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데 힘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1)

교육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이 쉽지 않고, 일자리를 원할 경우는 단순노동의 일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화장품용기 회사를 야간으로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정도의 기술이나 교육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실에 맞는 기술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에 참여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3)

4) 교육비 부담 해소 필요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려 하지 않고 거의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녀 양육의 부담과 정부 지원금이 줄거나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남편의 반대로 인해 전문적인 일을 갖기도 쉽지 않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넉넉하지 못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교육비가 부담되어 정부 차원의 교육비 지원이나 감면 혜택을 희망하였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에 단시간의 아르바이트는 허락을 하
지만 회사를 다니는 건 남편의 반대가 심해서 많이 싸우고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리
고 자녀가 있어서 하루종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좀 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계획을 세워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을 많이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전문직으로 나가는 것에 반대가 심합니다. 이런 환경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2)*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어 일을 하
면 수급비가 줄거나 끊기는 것이 걱정되어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
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어려워요. 또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다면 이대로
의 생활이 좋다는 생각에 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결혼 이주자들이
생활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부담이 됩니다. 교육비 감면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4.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

1) 다문화 접근성이 강조된 교육과정 개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은 결혼 이주 농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학습과 체계화된

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와 연구, 논의를 통해서 개발된 교안을 다문화 농인의 참여로 수정과 보완이 이뤄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인을 위한 전문가가 양성되고 농인을 위한 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희망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초 생활상식, 한국 사회의 이해, 한국 문화의 이해, 한국어-한국수어, 한국요리 등을 배우지만 생활법률과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수어통역사가 아닌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차질 없이 교육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았는데, 지금은 청각장애인학습센터의 교육에 참여하면서 다문화 접근성 교육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농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결혼 이주 농인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어 가르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1)

저는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문화 교육이 많이 진행되지만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얼굴 마사지, 한복 디자인, 가방 등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2)

프로그램이 단기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농인을 위한 다문화센터나 농인을 위한 교육센터가 생겨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2) 교육 대상자에서 전문가로의 도전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는 전문가로서 경험을 쌓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연구참여자들은 지금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 대상자에서 자신들과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하였다. 특히 같은 경험을 하는 결혼 이

주 농인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다문화 강사, 인권 강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다문화 강사, 농인 인권강사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싶고, 몽골에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교육을 배움과 동시에 경험을 쌓으면서 강사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1)

현재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농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관련 정책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복지관에서 농인을 위한 사회복지사로서 농인들을 상담해 주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2)

저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결혼 이주 농인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3)

현재 청인들과 농인들에게 수어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인들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어 수어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4)

3) 후배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을 위한 바람

연구참여자들은 후배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 한국 문화와 한국어-한국수어를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 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반복적인 시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주 농인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희망하였다.

한국에 왔을 때 고립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한국어-한국수어, 문화 예절,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 및 다양한 정보를 다국어로 수어통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다각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또 다문화 교육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단지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연구참여자 1)

한국에 와서는 가정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인들이 교육을 통해 경제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한국수어를 기본적으로 배워오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긴급지원도 필요합니다. 청인들처럼 전화 통화가 가능하지 않기에 수어통역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대에 농인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 정보화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한국수어를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연구참여자 4)

V. 논의와 결론

본 연구는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의사소통과 문화 적응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 중심의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에 참여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되었고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고충과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으로서 경험한 삶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해 총 4명의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참여 경험은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으로 4개의 주제와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엔 부족한 지원체계’를 포함한 14개의 하위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경제적인 안정감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 기대감으로 왔지만 남편이나 가족들의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단절되어 빠르면 1~2년, 늦으면 2~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농아인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결되어 지원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힘들게 취업을 한 경우에도 고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한국에서 뚜렷한 경력이 없어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외국인이면서 장애인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과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은 꾸준히 새로운 교육에 참여하며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농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라는 소통의 방법을 공유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농문화로 인해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되며 심리적으로도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청각장애인 배우자를 선택해서 문화적 연속성을 추구하고자 한다(이미선,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생활문화를 배우며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교육 대상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과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하였다. 특히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 참여 현장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고충과 현실적인 한계로는, 첫째, 전문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한국어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의 장벽과 자국어수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이중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이주한 참여자 2와 몽골에서 이주한 참여자 3이 경험한 많은 프로그램들 역시 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여 농인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길 희망하였다. 둘째, 결혼 이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어 교육, 한국 생활 적응 및 문화이해,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 문화적 영역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한국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데다 결혼 이주민 각각의

개별 상황과 원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농인과 관련된 이슈를 담아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과 실천적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결혼 이주 농인이 처음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방문면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 이주 농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실행된다면 현행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타 기관들에도 지원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청인들과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어통역을 잘하는 전문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같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어통역사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결혼 이주 농인들의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교육비 부담으로 희망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혼 이주자들을 위해 교육비 면제 및 인하 시행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등 다국어 수어통역으로 제작된 생활안내책자, 피해 예방(법률), 가정생활, 장애인정책에 관련한 수어 영상자료가 제작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결혼 이주 농인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서울 한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농인들에게는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 지역 단위로 지부가 세워져 학습권에서 소외되고 사회와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농인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이주 농인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주 농인들의 국적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원어민이 참여한 표준 교육과정부터 전문 교육과정 교재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 결혼 이주민의 상황과 문화적 요구를 더욱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에 더하여 이주민들의 원 국가 언어를 활용한 양방향 언어 교육을 도입하여 언어적 적응을 지원하고, 문화 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어민 강사 양성이다. 누구나 언어를 배우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습득한다. 결혼 이주 농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원어민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효과적이고 보다 의미 있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문화 강사, 농인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표현한 연구참여자 1처럼 원어민 강사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적인 시스템의 운영이다.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별 이주민의 적응 어려움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복되는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 농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 학습과 취업을 분절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통합적인 학습 과정이 이뤄지도록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 이주 농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은 결혼 이주 농인들의 언어적·문화적인 다양성과 사회문화를 접하며 문화와 언어의 벽을 경험할 수 있다. 실무자들이 이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보다 원활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소수 사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모든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로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개인의 생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생애사적 탐구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또 다른 차원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 김경진 (2004). 통합교육 장면에서 대학생의 농문화 인식 연구. 재활복지연구, 2, 69-85.
- 김선녀 (2013). 한국 이주 몽골인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임춘희 (201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27-5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사회통합 정책. 인출 2024.4.30.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1/subview.do>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024). 사업안내. 인출 2024.4.30. https://slcd.or.kr/page/?M2_IDX=32295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시행계획.
- 이미선 (2015). 청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7(3), 125-150.
- 이보라미 (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성과. 새국어생활, 28(2), 1-30.
- 이성연, 최유 (2006).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성희, 김나연, 김현수 (2016).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9, 1-25.
- 이영미, 이진숙 (2020). 청각장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젠더와 사회, 31, 61-87.
- 이영미, 정임순 (2019). 결혼 이주 청각장애 여성의 결혼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특수교육학 연구, 54(2), 129-156.
- 이준우 (2020) 농인의 삶과 수화언어. 파주: 나남.
- 이준우 (2021). 역사적 변천에 따른 한국수어 번역의 형태와 특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508-524.
- 이준우 (2022).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수어 담화 내용 분석. 인문사회 21, 13(5),

2943-2957.

- 이준우, 박종미, 이진영, 김현숙, 김시내, 강이슬, 김건하 (2021). 2021년도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보고서. 하남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정진영 (2002). 수화무용이 자아개념과 농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4(2), 99-120.
- 최희선 (2018). 한국의 다문화 의미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함경수 (2023).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교육 습득 과정의 경험.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uman, H. (2008). Listening to phonocentrism with deaf eyes: Derrida's mute philosophy of (sign) language. *Essays in philosophy*, 9(1), 41-54.
- Bishop, M., & Hicks, S. (2005) Orange eyes: Bimodal bilingualism in hearing adults from deaf families. *Sign language studies*, 5(2), 188-230.
- Groce, N. E. (2003). 마서드 비니어드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박승희 역). 파주: 한길사.
- Holcomb, T. K. (2021).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R. E., & Karchmer, M. A. (2004) Chasing the mythical ten percent: Parental hearing status of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ign language studies*, 4(2), 138-163.
- Mitchell, R. E., & Karchmer, M. A. (2006). Demographics of deaf education: More students in more place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51(2), 95-104.
- Preston, P. (1994). Chameleon voices: Interpreting for deaf parents. *Social science & medicine*, 42(12), 1681-1690.
- Schein, J. D. (2009). *At home among strangers: exploring the deaf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Gallaudet University Press.
- Scott, J. A., & Hoffmeister, R. J. (2017). American Sign Language and academic English: Factors influencing the reading of bilingual secondary school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Th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22(1), 59-71.

- Singleton, J. L., & Tittle, M. D. (2000). Deaf parents and their hearing childre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5(3), 221-236.
- Stake, R. E. (2013).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Guilford press.
- Yin, R. K. (2011). *Applications of case study research*. sage.

원고접수 : 24.04.30.	수정원고접수 : 24.06.13.	게재확정 : 24.06.20.
------------------	--------------------	------------------

Abstract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Deaf Marriage Migrant Women to Life in Korea Throug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Education

InJi Yoon*, JunWoo Lee**

This study focuses on the adaptation of Deaf marriage migrant women to life in Korea. To this end, it aimed to understand in which areas the Korean language-center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education, in which these women participated, was helpful and effective, as well as the difficulties and practical limitations encountered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conducting interviews with a total of four deaf marriage migrant women. The study results revealed four main themes: 'Difficulties in the Adaptation Stage to Life in Korea,' 'Difficulties Arising from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Challenges Faced in the Field of Multicultural Education Participation,' and 'Suggestions and Hopes for Change,' along with 14 sub-themes, including 'Inadequate Support System for Understanding the Strange Land of Korea.' Based on these findings, six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nd fiv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o promote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support the adaptation of deaf marriage migrant women to life in Kore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eaf culture.

Keywords: Deaf, deaf culture, married immigrant Deaf wome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education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